

##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와 성격특성요인: 신혼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김 선 영\*(한국도자기부설 아동가족상담센터 상담원)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애정, 관계의 불안감, 긍정적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과 성격특성 요인(반응적인 성격, 저항적인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신혼 초 결혼생활과 현재의 결혼생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강화시키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부부교육이나 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청주시 소재 유치원 7세,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355명이었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 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F-test, MANOVA, ANOVA, Tukey 사후검증, 교차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부부의 학력과 가족수입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애정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높고,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내의 성격이 더 반응적이며, 부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성격이 더 반응적이고, 부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아내의 성격이 더 저항적으로 나타나, 학력, 가족수입, 연령, 결혼기간 등은 결혼생활만족도와 이혼을 예측하는데 관련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결혼 전에 배우자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불신감이 적을수록, 혼전에 임신을 하지 않은 경우, 성장배경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적을수록 신혼 초 결혼생활은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결혼생활에서 애정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계의 불안감이나 부정적 상호작용은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남편과 아내의 성격을 반응적으로 지각하였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남편의 성격을 저항적으로 지각하여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생활을 더 잘 예측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애정, 관계의 불안감,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의 변화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애정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애정이 조금 감소하거나 증가한 반면 현재 불행한 집단은 애정이 신혼 초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관계의 불안감이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하였고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반면 불행한 집단들은 관계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불행한 집단들은 모두 감소하였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감소하였으나 불행한 집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